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23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담 당 자	• 기획팀장	이규석	☎440-2131
	예산담당관		• 담당자	손주영	☎440-2306
			• 예산총괄팀장	고태수	☎440-2251
			• 담당자	신선미	☎440-225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2023년 예산 키워드, 미래 준비와 민생경제 재도약 견인 **- 23일, 2023년도 기획·재정분야 예산 토론회 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23일 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획·재정분야 시민참여 예산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토론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병행한 이날 토론회는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시민들이 동참하고 소통해 예산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정책기획관과 예산담당관이 각각 기획조정실과 재정기획관실의 2023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 우선, 내년도 기획분야 예산의 핵심은 인천의 미래정책 개발이다.

인천시는 시의 주요 미래구상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가 집단이 시장님께 직접 자문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인천 미래기획 자문기구를 인천연구원에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인천형 미래인재 양성과 시민 역량 강화사업도 확대한다.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확대를 비롯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올해 조성된 시민대학(시민라이프 칼리지)에 ‘인천학’ 특화과정을 운영해 지역의 정체성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그 밖에 ▲지능형 데이터센터 발전전략 수립 및 클라우드 전환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통합웹사이트 운영 ▲시민생활 밀착형 지역통계 지속 추진 ▲스마트 솔루션 확산 및 인프라 구축 등 인천의 미래를 선도할 디지털행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내년도 인천시의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운용된다.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지역균형발전 촉진 ▲미래산업육성 ▲수요자 중심 시정혁신 ▲시민행복 구현을 뒷받침하는 예산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비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탄소중립·디지털전환·바이오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국고보조금 등 확보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 밖에 ▲고액상습자에 대한 추적 징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추진 ▲보존부적합 토지 등 공유재산 적기 매각 등을 통

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기획·재정 분과 김주익 위원장이 진행을 맡았고, 김명량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장, 김재영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소아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위원, 성기욱 스마트시티(주) 대표, 이승배 주민참여예산 기획·재정 분과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협력, 재정·참여예산, 데이터혁신, 스마트도시의 4개 분야에 대해 제안했다. 그 밖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시 정책기획관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석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인천시의 기획·재정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